



삼천2동 자치위, 코로나 극복 쌀국수 40상자 전달

전주시 삼천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대선)는 지난 2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쌀국수 40상자(100만 원 상당)를 삼천2동 주민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국수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4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대선 삼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가운데 때 이른 불볕더위로 입맛도, 기력도 떨어지는 요즘 어르신들이 간편하게 별미로 드실 수 있도록 회원들이 심사일만 정성을 모아 쌀국수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어르신들께서 코로나19도 잊고, 더위도 잊게 할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진숙 삼천동장은 "정부 방역지침을 받고 따라주시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이 생겼을 때 주민자치위원회, 자생단체 및 삼천2동 주민 여러분이 보여주시 따뜻한 나눔과 연대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보훈가족 복지증진 · 보훈문화 확산 기여

전북농협 호국 · 보훈 공로 감사패 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28일 보훈가족 복지증진과 보훈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운심)으로부터 2021년 보훈가족 복지증진 공로자 포상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감사패 수상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별도의 전달식 없이 전북농협을 방문한 전북동부보훈지청 이운심 지청장으로부터 국가보훈처가 수여하는 감사패 전달로 진행됐다.

전북농협은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며 전주 군경묘지를 방문 추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훈가족 나눔



활동으로 보훈가족 식사대접, 우리농산물 나눔, 이불전달 등을 진행했다. 또, 노후화된 주택의 보훈가정을 방문해 도배·장판 교체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직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훈가족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헌활동을 더욱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대민업무 공무원 힐링 · 치유 교육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종모)은 28일 세종 컨벤션센터, 가족 공방 등에서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세종 마음건강센터와 협업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접목해 대민업무에 지친 담당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을 통해 조직에 활력과 민원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스트레스 자가진단과 심리치료를 현재 처해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긍정의 마음을 갖는 과정과 가족공예 제작 등 체험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 육류연 정보민원담당관은 "새만금 개발사업 현장에서 대민접점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건강한 직장생활과 함께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해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양영환의원, 족구연합회 감사패 수상



양영환 전주시의회 의원이 28일 지역 체육 인프라 조성과 족구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평화동족구연합회(경중성 회장)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경중성 평화동족구연합회 회장은 "양 의원은 평소 '발로 뛰는 시의원'으로서 주민 건강 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 생활체육 육성에 백방으로 최선을 다했다"면서,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양 의원은 "개인적으로 체육 분야에 관심이 많아 오랜 기간 체육 인프라 조성 및 족구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전주시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이달의 혁신 주인공' 김정태 일자리경제정책 주무관 선정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실의 김정태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주인공'의 여섯 번째 주인공이 됐다.

도는 매일 다른 주제로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는데, 이번 달에는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새내기 주인공'을 선정했다. 6월의 주인공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전북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으며, 심사를 통해 김정태 주무관이 최종 선정됐다.

발굴, 국제행사 유치추진 지원 관련 업무 회의에서도 20대의 북북 뛰는 감성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또한, 특유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생활치료센터 근무, 코로나 주말 대책회의의 준비, 명절 물가대책



비상근무와 같이 남들이 귀찮아하는 업무도 솔선수범했으며, 항상 웃는 얼굴로 진심 어린 교감으로 소통하는 등 부서 내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최훈 행정부지사 부서를 방문, 김정태 주무관에게 기념선물과 동료 직원 명의로 상장을 수여하며 격려했고, 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주인공 팝아트 액자를 증정하고, 해당 부서에 간식을 제공했다. 김정태 주무관은 "새내기 공무원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선배 동료 공무원들의 조언을 새겨들고,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호상 기자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삼계탕 나눔 봉사 활동

희망의샘 안전봉사대(이사장 유충열)는 지난 28일 서노송동 전주 도시혁신센터에서 노송 천사마을 주변 경로당 5곳과 교통신호 피하로 장애를 입으신 가정 등 20여 가구에 '삼계탕과 밀반찬 도시락'을 전달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봉사에는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희망봉사단과 정문구 노송동장,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가급적 대면 봉사를 피하기 위해 삼계탕과 도시락 꾸러미를 노송동 주민센터에서 추천 받은 경로당에 각각 배달을 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다.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김순덕 회장은 "코로나19로 목말랐던 봉사를 비대면 방식으로 영양과 정이 듬뿍 담긴 보양식을 대접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되는 '어르신 건강 UP, 행복 UP' 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정문구 노송동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 배달, 삼계탕 음식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노송 천사마을 주변에서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희망의샘 안전봉사대는 지난 2011년부터 매일 노송동 주변에서 음식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b>전주매일</b> www.jmci.com		2004년 11월 29일 등록(약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주)5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945-4113	중앙지사 010-9389-6574 인후지사 246-6655	남원지사 632-3986 김제지사 545-4227	고창지사 668-6989 임실지사 010-99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순창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944	완주지사 246-6655 남원지사 632-0985	진안지사 433-3084 장흥지사 636-3757
산천지사 272-9417	군산지사 010-6739-0338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9922-6157
호주지사 010-6945-9986	익산지사 66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